

늦다고도 할 수 있는 여덟 번째 학기에 제가 교환학생을 시작하면서 가져 간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째로는 고등학교때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해서까지 계속 숨가뻐던 나날들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자는 것. 둘째로는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진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것. 여행 욕심도 별로 없었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하고, 전공 분야도 얼추 맞고. 큰 고민 없이, 또 큰 준비 없이 학교를 선택하고 훌훌 떠난 교환이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하며 느껴 왔던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성실한 느낌의 민족성과 깨끗하고 조용한 편의 도시도 저에게는 호감을 주는 요소이자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별 생각 없이 시작한 것 같지만, 막상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각기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남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교환학생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되기에 기록 형식으로 우선 적어보고, 뒤이어 저의 감상도 남겨 보려 합니다.

1. 출발 전

먼저 공과대학에서 도쿄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쿄대학교 측 사이트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도쿄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한 연구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맨 처음에 요청을 넣었던 연구실은 실험 여건 상 인원을 더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반려되었고, 두 번째로 요청을 넣었던 연구실의 교수님, 조교수님과 skype로 면담을 진행한 후 그 연구실에 소속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내내 적을 두게 될 연구실이니 본인의 흥미와 관련하여 알아보고 요청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부터는 비자, 기숙사 등의 실질적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입니다. 시스템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면, 8월 말 경 CoE(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우리 학교 공과대학 행정실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는 9월 중순이라 촉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CoE가 일단 나오면 일본대사관에서는 하루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가깝고 또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 도시이기에 큰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하는 3대장인 ‘주소 등록,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필요할 지 정도만 알아 보고 출발했습니다.

2. 학교 생활

1) 연구실 생활

공과대학 교환을 통해 도쿄대학교에 가게 될 경우 연구실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름만 걸어 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4학년이고,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아무래도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생명 분야 전공을 고려하고 있었기에, 저는 평일에 거의 매일 연구실에 나갔습니다. 대체 멀고도 가까운 이 나라는 뭐가 다르길래 노벨상을 올림픽 금메달 받듯 받나.. 싶어서 최고 대학으로 손꼽히는 곳의 연구실을 어깨너머라도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도 약간 있었습니다.

조교수님들도 각자 연구실을 꾸려 나가시는 우리 학교와 다르게, 도쿄대학교의 경우 한 교수님의 랩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이 있고, 각 그룹의 리더로서 조교수님들이 계셔서 학생들의 연구를 꼼꼼하게 봐주시거나 업무적인 부분들을 맡아 하시는 형식입니다. 첫 날 각 그룹의 소개와 논문을 보고 한 그룹을 선택해, 한 주제를 가지고 실험도 하고, 관련 논문들을 찾아 리뷰도 작성했습니다. 매 주 두세 명씩 자신의 연구 진행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랩 미팅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각 그룹 별로 상세히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그룹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세 진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소속감을 가지고 즐겁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 수업

교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럽고 신기했던 것이 있는데, 전공이 아닌 계열만 정해서 입학한 후 나중에 전공을 정하고, 4학년은 각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연구실에 속해서 졸업 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수업은 거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발표, 최종 발표까지 격식 있게 진행하며 연구 경험을 쌓으며 졸업 학년을 보낸다는 것이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흔히 도쿄대의 학풍을 관료 육성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공계에 한해 제가 느끼기로는 서울대에 비해 연구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수업 자체는 서울대학교에서 듣던 강의들에 비해 배우는 양도 적고, 진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가을 학기는 A1, A2 두 학기로 나뉘어 A1, A2 각각 한 학기 만에 끝나는 과목도 있고, A1~A2 두 학기에 걸쳐 운영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수강신청은 정원 없이 원하는 대로 신청하고, 정정 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있는 식입니다. 공과대학에서 열리는 수업 외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첫 주에 시험이나 과제를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쭙 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난

이도도 크게 높지 않고, 평점에 반영되지 않으니 여유가 있다면 공대 다른 전공을 맛보기 하는 기회로 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과목 외에 평소 관심이 있던 정보공학 쪽 패턴정보학 과목도 함께 수강했습니다.

3. 일본 생활

1) 언어

저의 경우 2년 전에 JLPT N1을 합격해 두긴 했지만, 한자나 언어 지식 쪽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평소 대화는 일본어, 연구 관련은 영어로 했고, 영어로 열리는 수업은 거의 없었기에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더라도 강의 자료나 교과서는 거의 영어인 우리 학교와 달리, 강의 자료도 거의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찾아 가며 공부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평상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더 공부를 하고 갔다면 배울 수 있는게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느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 기숙사

도쿄대학교의 경우, 여러 캠퍼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길 건너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관악과 연건처럼 교통수단을 이용해 꽤 이동해야 하는 만큼 떨어져 있는데, 보통 교환학생들은 수업과 연구실이 있는 혼고캠퍼스가 아닌 고마바캠퍼스나 시로카네다이캠퍼스, 카시와캠퍼스의 기숙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학교 외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머무르고 싶은지, 비용은 어떤지 등을 생각해서 원하는 기숙사의 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면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로카네다이캠퍼스의 외국인 전용 캠퍼스에 있었는데, 시설은 많이 낡았지만 혼고캠퍼스에 그나마 가까운 편이었고 변화가에도 가까워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3) 교류

같은 기숙사에 머무르는 친구들 중에는 유럽인과 중국인이 많았고, 남미 등 다양한 출신이 있었지만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주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차별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유럽인도 있었고, 반면에 일본어도 유창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도 찾아 가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개인차가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 마다 유학생들이 모여 교류하는 시간도 있고, 일본어 수업을 신청하게 될 경우 여기서도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JLPT N1이 있어야 하는 이 프로그램 특

성상 높은 확률로 상급반에 배정되는데, 일본어 수업 상급에는 인원이 엄청 적고, 그나마도 거의 한자 생활권인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교환학생 생활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교류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교환학생 하면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나라의 친구를 많이 만들고 하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유럽 국가 학교들만큼 유학생의 비율이 높지도 않고, 기숙사도 거의 1인 1실인 도쿄대학교 환경 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과는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교류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여담이지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도쿄 어딜 가든 무인화 계산 시스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산대에 사람이 아예 많은 점포가 식당 뿐 아니라 의류 매장 등에도 있었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엔 거의 외국인 분들이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노동인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체감하기로는 처음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영뚱하지만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4. 개인적 후기

누군가 저에게 도쿄대학교 교환학생을 추천할 것이냐 묻는다면,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답할 것 같습니다. 여행과 교류로 가득한 활기찬 교환 생활을 기대하면 금방 실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진로 고민과 조용한 생활, 연구실 경험, 그리고 약간의 언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기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현재, 흔치 않은 기회를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